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이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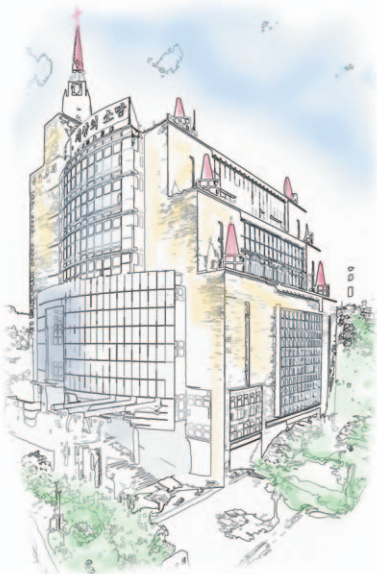
여호와께 영원히 찬송을

(시편 111:1-10)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찬양은 개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하는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들의 작은 모임과 교회의 큰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11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2, 6, 7절에 나타난 ‘행하시는 일들’(works)이라는 단어는 3절의 행하시는 일(deeds)과 4절의 기적(wonders)과 동의어입니다.

1. 여호외를 찬송하라

시편 111, 112편은 1절에서 각각 ‘할렐루야’로 시작한 후 시의 주제가 나옵니다. 시편 112편에서는 시편 111편의 마지막 절을 끌어내어 여호외를 경외하는 사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1절).

시편 111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 자신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며 다른 백성도 그렇게 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며,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하지 않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with all his heart) 찬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반심(半心)으로 찬양하고 의례적인 헌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반심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은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찬양은 개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하는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들의 작은 모임과 교회의 큰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5절).

시인은 5-9절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해 쓰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일반적으로 말했다면, 5-9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것들을 보고 궁리하고 연구하지만 크리스천은 궁리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근원을 알고 있는 크리스천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이 즐거움을 감사로 찬양해야 합니다.

3.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찬양하라

5-8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계속 나열됩니다.

5절의 양식은 이스라엘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만나이고 언약은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을 말합니다. 또 6절의 ‘그가 행하시는 일’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7-8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과거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현재형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출애굽은 죄로부터 구원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그리고 계속해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선한지를 생각할 때 시인과 같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여호외의 구원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9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일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생각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전 1:30)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 바울 사도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도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된 구속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확실하고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7-8절)입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은 추구하나 지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분명, 우리의 삶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를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기본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참 지혜를 갖게 될 것이고, 참 지혜를 가진 자는 여호외를 찬양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참 지혜를 소유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로잔국제지도자대회 ·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

장로교의 날 - 기자 간담회

5월15일(금) 비전홀에서 가져

지난 5월15일(금) 로잔국제지도자대회와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 장로교의 날을 교계 및 사회에 알리기 위한 기자 간담회가 우리교회 802호 비전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가 주관하는 가운데 조종남 박사, 김상복 목사, 이광순 박사, 이양호 박사, 권호덕 박사, 안명준 박사, 지명수 박사 등 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CBS와 CTS TV 등 2개 교계 방송사, 그리고 기독교보를 비롯한 여러 교계신문 기자들이 제반 행사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조종남 박사는 전임 한국로잔위원장으로서 지난 1974년 열린 1차 로잔대회부터 시작하여 로잔대회의 개략을 설명하였으며 로잔은 신학이 흔들린 기독교계에 로잔언약을 통해 복음주의 적인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정의하였다.

김상복 목사(할렐루야 교회)는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로잔대회는 이슬람 확장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전세계 복음주의 기독교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회로 예수가 유일한 구주되심을 선포하고, 가난 등 사회적 문제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대회에 한국은 미국(400명), 중국(300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120명의 대표를 파송한다.

이광순 교수(장신대)는 이런 큰 대회를 열기 위해 모든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로 오는 6월8일(월)부터 열리는 로잔국제지도자 대회로 본 대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고 younger leader's 대회는 15일까지 열리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배경은 전세계 복음주의 기독교 대표들이 가장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와 함께 I. T. 산업의 발달로 회의를 도울 수 있는 나라로서 한국이 적임이었으며 2010년 대회의 리허설을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이어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 설명은 이양호 박사(연세대)가 3개 학회(장로교신학회, 개혁신학회, 칼빈학회)가 연합하여 준비에 임하고 있으며, 권호덕 박사(백석대)는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 전반을 일자별 행사별로 설명하며 특별히 기념예배를 칼빈이 제시한 예배 형식에 따라 드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윤 목사는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대회 보충설명에서 '칼빈과 한국장로교회의 성장과 과제'라는 주제하에 7개 분과로 나누어 총 70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이를 책임질 각 분과별 좌

장은 각 신학대학교 전, 현 총장들이 맡고, 추후 발표된 논문들을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로교의 날 행사는 칼빈 탄생 500주년과 연계하여 '연합과 일치를 위한 장로교의 날' 행사로 준비되며 칼빈 생일을 기념하여 7월10일(금) 오후 4시 장충체육관에서 한장총 회원 27개 교단 목회자 및 성도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어 계속된 기자들의 질의시간에는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가 대동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종윤 목사는 장로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2012년 한국장로교 100주년 기념의 해에 사분오열된 한국장로교회가 급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어떤

형태로든 모여 다시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15년 조국 광복70주년의 해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귀환한 것처럼 조국 통일의 비전(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제시하고 세계복음화의 교두보를 삼을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앞으로 연합과 일치를 위한 좌담회를 계획하고 매년 9월 두 번째 토요일을 '장로교 신학자의 날'로 정해 모임을 정례화 한다고 했다.

계속된 로잔의 활동에 관한 질문에 로잔은 'Think Tank'의 역할을 한다고 하며 로잔언약을 기초로 한 한기총 공동 신앙선언문을 예로 들며 신학적 기반이 다른 각 교단에서 어떻게 하나 된 신앙선언을 할 수 있는가? 로잔언약은 모든 교단에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이를 기초로 한기총의 유일한 신앙선언문을 만들 수 있었으며, 앞으로 북한 전도시 단일 교단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를 시험할 수 있었던 것이 몽골로 118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한기총 선언문을 바탕으로 Church of Mongolia 단일교단 형성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제는 한국이 전세계 신학의 중심축이 되었으며 칼빈 논문집이 나오면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전세계에 배포하는 큰 신학적 공헌을 할 것이다.

(편집부)

제10대 장로 선출 위한 공동의회

5월10일(주)까지 등록한 18세 이상 세례교인 참여

제10대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2층에서 열린다.

지난 주일(5월10일)까지 등록한 18세 이상 세례교인(1991년12월31일까지 출생자)은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투표권 교부장소'에서 오전10시-오후4시50분까지 선거인명부에서 본인확인 후 투표권을 교부받고 본당 2층에 입장하여 찬양예배에 참여한다.

투표권 소지자는 공동의회 시간에 장로님들에게 투표권을 제출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에 투표한다.

투표는 OMR 카드로 하게 되며 공동의회 시 배부되는 수성편을 이용하여 1번부터 20번까지의 후보 중 본인이 기도하며 응답받은 후보를 10명까지 해당 번호에 표기하면 된다. 은혜 중에 공동의회가 진행되도록 기도한다.

'주여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는지 보이시옵소서'

성경통독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1독> (4교구) 임훈규 장로
- (5교구) 성준경 장로
- (9교구) 이남성 집사 이우석 성도
- (12교구) 정민보 집사
- (16교구) 장양일 집사

수요어린이 야외예배 20일(수) 개포서근린공원

수요어린이예배(지도 노현상 목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외예배를 드린다. 유아부에서 초등부까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당일 4시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1부 예배 후, 야외에서 함께하는 즐거운 미니올림픽을 비롯한 즐거운 게임과 푸짐한 선물이 준비된다.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일시 : 2009년 5월 20일(수)
장소 : 개포서 근린공원(개포역 인근)
시간 : 오후 4시~6시(교회출발4시)
대상 : 유아부에서 초등부까지

칼빈 흉상제막식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Cor meum tibi off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봄비가 소리 없이 실비 되어 내리는 화요일. 5월 12일 오전 9시 장신대 교정에서는 개교 108주년 기념으로 칼빈 흉상 제막식이 거행 되었다. 비에 젖은 신록이 더 푸르렀고 싱그러운 가운데 순례자는 몇 분의 부목사님들과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다녀왔다.

이날 내빈 소개와 경과보고로 시작된 제막식에서 기도 순서를 맡으신 본 교회 이종윤 위임 목사(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는 "삭막하고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셨음에 감사, 이미 500년 전에 칼빈 목사의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정신을 본받아 의인의 길을 향할 수 있길..."

또한 이 교정에서 이 흉상을 바라보는 후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칼빈 정신을 기리게 하여 보람된 삶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최선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길 간구하셨다.

"이를 통해 장로교가 한 마음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여 아름다운 사랑으로 복음의 기초가 되어, 광복 70년이 될 2015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처럼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을 속히 이루어, 영광은 하나님께로 은혜와 복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다.



**삭막하고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에 감사,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정신을 본받아
의인의 길을 향할 수 있길...**

게 하시기.."를 기도하셨다.

다니엘 르클레르크 교수(흉상제작 조각가)는 프랑스 파리 국립 보자르 미술대학에서 직접 조각한 칼빈 기념 조각품을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과 장신대 총장님게 전달했다. 이어서 이종윤 목사님께 감사패도 전달되었다.

칼빈 흉상 조각은 재료가 청동이며, 작품크기는 60Cmx30Cmx30Cmx, 제작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였다. 새겨진 문구는 (Jean Calvin, 1509~1564),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Cor meum tibi off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라고 새겨졌다.

이 흉상은 칼빈이 16C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상에 즈음하여 신앙의 순수한 열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개혁 정신이 가장 불타던 30대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많은 자료를 입수했다고 작가는 작품 설명을 했다. 아시아 칼빈학회 회장 이수영 목사는 기념사에서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교회의 좋은 교사로서 위대한 사상과 신앙의 순수성을 따르고, 개혁자의 흉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남긴 사명과 신앙을 본받아 개혁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씀 하셨다.

장신대 교정을 나오면서 순례자는 신록이 비에 젖을수록 더 푸르고 싱그러운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솟구치는 젊음의 열기와 순수성이 바른 신학으로 정립된 맑은 영혼의 성도들 같았기에...

윤영남 (편집부)

천국시민 양성

이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재경 집사(유년부 교사)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유년부 봉사한지 2년, 짧은 봉사 시간이지만 나의 삶에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아이양육이나 대학 강의에도 책임감은 부족하고 의무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유년부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와 강의 나가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진실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대치동의 특징을 잘 알고 있지만, 유년부 아이들이 성경학교 때에 학원 때문에 못 온다고 할 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부모님들께 학원을 빠지고 성경학교에 보내달라고 말을 하지 못했기에...

그러나, 이제부터 학부모님과 교사가 협동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일에 순종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열정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최승환 집사(고등부 교사)

내가 처음 교사 직분을 받았을 때 교사라는 직분은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도록 지도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몇 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 앞에서 바로 서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선다는 것은 신앙 생활에 모범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예배 시간, 집회 시간을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교사가 지키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더 이상 교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공과 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과는 교회 생활의 기본으로 학생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 공과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가정이나 학교 또는 친구들과 사이에 풀지 못하는 여러 문제를 안고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름이 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미래를 만들어주기 보다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바탕을 마련해주는 가이드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서울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이 서울교회 고등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 대한 비전을 품는다면 고등부 교사인 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자신 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다가가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

스승의 주일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김세준 (중등부)

저는 오랜 기간 중국 상해에서 가족들과 거주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신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억은 5학년 여름방학 수련회 때 전도사님이 학생들과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와 경외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중2 때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서울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다년간 살았기 때문에 조금 낮이 설었는데 교회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매일 1절이라도 잠언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신앙심이 더욱 자라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생활이 이만큼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었을 뿐 아니라, 궁금했던 것을 그때그때 알게 해 주신 선생님들의 열정과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서현 성도
(호산나대학 학생회장 3학년)

호산나학교 교수님들께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호산나학교 교수님 호산나대학 학생회장 심서현입니다.

항상 저희 학생들에게 바른길 가라고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잘못 했을 때 타이르시고 학생들을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산나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학생회장이 돼서 달라져 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 호산나학교 교수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면 호산나학교를 빛내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남은 2년 동안 교수님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교수님들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수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故) 이옥녀 권사 위로예배

20일(수) 오후 5시 501호



지난 5월13일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故) 이옥녀 권사님을 성도들과 함께 추도하는 시간을 20일(수) 오후 5시 501호에서 갖는다.

이옥녀 권사님은 우리교회 설립 전, 성도들을 자택에 모아 연일 기도회를 갖는 등 믿음의 공동체를 일궈 서울교회 설립에 큰 헌신과 공헌을 하신 분으로 김호선(박혜경) 집사, 김훈(김혜아) 집사의 어머니가 되신다.

고인을 추모하는 위로예배는 당회원 중심으로 준비된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20일(수) 장로교의 날 행사 위원장 회의를 소집한다. 23일(토) 한기총 20주년 기념 사랑의 쌀 나누기 1000회 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수상: : 나미용 집사(12교구) 보건복지부장관 공로표창장
- 선임: 김중윤 집사(8교구) 반도라이온스클럽354A지구 부회장
- 이사: 5교구 박충구 집사, 문승순권사 가정 군포시 산본동 80-18. 품림빌라 13-201호
5교구 정승주 집사, 이양숙 집사 가정 화성시 석우동 53. 동탄 예당마을 우미제일아파트 117-2903 T. 031-8003-2166
:5교구 임명자 집사 가정 군포시 오금동 소월삼익아파트 381-1202호

- 주간식당봉사: 빌립선교회(5.17) 안드레선교회(5.24)
- 금주의 식사: 안성현 집사 유숙인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신 간 안 내 ■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 운동



세계로잔운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은 서적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운동'이 출간되었다.

신국판 235면, 발행·편집인 이종윤목사(필그림 출판사)

이종윤 목사 저서 40% 할인판매

- 5월 말까지 -

우리교회 서점에서는 이종윤 목사 저서 전체를 40%할인 판매하고 있다.

장신대-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22일(금) 오전 10시

-장신대 세계교회 협력센터-

22일 금요일 장로회신대학교의 초청으로 우리교회 당회, 스테반회, 권사회원 중 120명이 참석하는데 '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참석키로 되어있는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장신대 세계교회 협력센터 1층 국제회의장으로 모여주기 바란다. 주차는 운동장에 하기 바란다.

제11회 화요정오음악회

5월 19일(화) 정오-오자경 오르간 연주회

제11회 화요정오음악회 다섯 번째 순서로 한국예술통합학교 교수 오자경 집사(2부예배 오르가니스트)의 오르간 연주회가 열린다.

관람은 본당 3층에서 하기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믿음, 소망, 사랑이 가정마다 넘쳐도록
3. 로잔국제지도자대회, 칼빈탄생500주년기념대회, 장로교의 날 행사준비 위하여
4.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5. 세계적 경제 대란을 잠재우고 북한의 전쟁위협 사라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